

방향은 바꿨지만...괘 미군기지 타격 능력 과시용

북한 미사일 도발 왜?

북한이 29일 새벽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26일 3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05시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계열로 파악했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700여km, 최고 고도 약 550여km로 판단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日 상공 통과 2700여km 비행
북한에서 꺾까지는 3500여km
괘으로 쏘기엔 미국 후폭풍 부담

평양 외곽에서 처음 발사
美 사전공격 등 고려해
예측 불가능성 높이려는 의도

미사일 꺾적 일본 상공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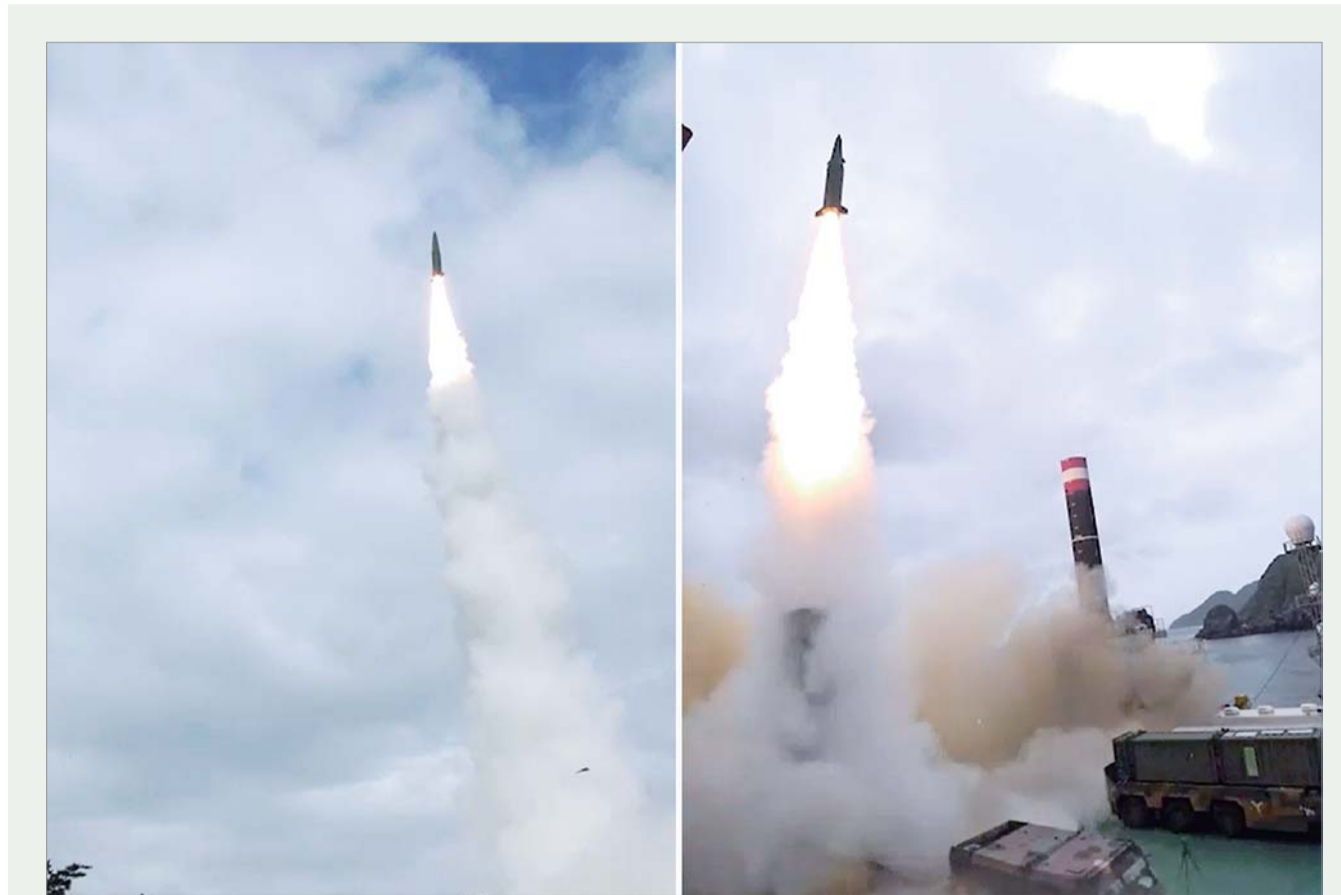
이날 미사일은 일본 열도의 상공을 통과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날아간 것은 1998년 3월 대포동 1호와 2009년 4월 은하 2호가 일본 열도를 통과한 이후 세 번째다. 발사 각도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통과시킨 의도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일본은 물론 괘의 미군 기지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에서 꺾까지는 3500여km로 이번 미사일은 2700여km를 비행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보통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3000~4000km”라면서 “여기에서 사거리를 줄이려면 고각이나 저각으로 발사하고 반대의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최근 괘 포위사격 위협 발언을 했는데 북한은 한 번 공언한 말은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무래도 괘으로 쏘기엔 미국의 후폭풍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본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 인근에서 미사일 발사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평양 인근에서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힐 만큼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했다. 김 교수는 YTN 전문가 대담에서 “북한이 평양 외곽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그만큼 안정적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한 것”이라면서 “만약 미국이 사전 공격을 감행할 경우 평양 도심의 민간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움직임이 어렵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국방부가 지난 24일 실시한, 탄두 위력이 증대된 신형 '500km 탄도미사일'(왼쪽)과 '800km 탄도미사일'의 전력화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사거리 800·500km 한국형 탄도미사일 비행영상 공개

국방과학원 “북 핵심시설 정확히 파괴할 핵심전력...전력화 눈앞”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29일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최근 진행된 사거리 800km, 500km 탄도미사일의 전력화 비행 시험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국방과학연구원(ADD)은 이날 “지난 24일 ADD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탄두 위력이 증대된 신형 500km 탄도미사일과 800km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위해 마지막 비행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ADD는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거리 증가 및 탄두 다양화를 통해 위력을 높이고 정확도를 향상한 신형 탄도미사일(BM)을 개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ADD는 500km 탄도미사일에 대해 “북

한의 전 지역 핵심시설을 정확하게 침투해 파괴할 수 있는 맞춤형 신형 탄도미사일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전력”이라고 소개했다. 또 800km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은 “전력화를 위한 마지막 비행시험”이라며 “앞으로 야전에 배치하면 전천후로 타격이 가능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모든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 미 유화 제스처에도 도발 감행 이번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의 파고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6일 발사 이후 불과 사흘 만의 재도발로 트럼프 대통령과 Tillerson 미 국무장관이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등 미·북 간 대화 분위

크게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진단했다. 김용현 교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대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미국에) 대화에 나오라는 차원에서 감행한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제재 더 강경해질 듯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우리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과는 별개로 남북대화 의지를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군사적 시위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을 향해 잇따라 유화 제스처를 취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실망감이 커지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가 더 강경해지면, 우리 정부의 운신 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영선 기자 lgiant61@dema.mil.kr

■ 편집=정임숙 기자

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이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미 증원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 유리한 전략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발했을 것”이라며 “추가도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시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흥현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 의도에 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이 고개를 숙일 것을 요구했지만, 김정은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다양한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권 교수는 “예전에는 노동과 무수단 등 미사일 종류에 따른 발사 장소가 비교적 알 수 있는 장소였고, 이후에는 지역별로 미사일 기지가 구분되는 벨트 개념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전략이 바뀌면서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김정은 입장에선 미국의 사전 공격 등을 고려할 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위협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